



# 봄 알리는 매화... 제주섬 곳곳 꽃 잔치



제주 핫플레이스 (63) 매화축제

이른 봄 소식 전하는 '매화' 노리매·휴애리·한림공원서 꽃 구경과 함께 이색 체험도

매화는 누구보다 빨리 봄을 부른다. 추위 속에서도 고고히 꽃을 피운다. 울겨울엔 유독 빨리 꽃망울을 터뜨렸다. 겨울 같지 않은 따뜻한 날씨 덕이다.

이 계절, 꽃 구경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제주 곳곳에서 열리는 매화축제를 만나보자. 단, 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일찌감치 활짝 핀 매화가 바람에 흔들려 벌써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

▶매화공원에서 숨은 보물 찾기=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노리매 테마파크는 매화가 있는 공원이자. 노리매란 이름도 '놀이'의 순우리말과 매화의 '매(梅)'를 따서 지어졌다. 이곳에선 여덟 번째 매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축제는 오는 3월 1일까지 이어진다.

노리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 매화 꽃길에 펼쳐진다. 그 안엔 수선화와 목련, 작약, 동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다양한 꽃이 피었다 진다.

축제 기간 노리매에선 매일 보물 찾기가 열린다. 공원 곳곳이 놀이 무대가 되는 셈이다. 매화의 '매'가 적힌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나무 패를 찾으면 뜻밖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노리매 테마파크 관계자는 "하루 100개 정도의 나무 패를 숨겨놓고, 그걸 찾는 방문객에선 메모지와 미니 연필을 선물로 주고 있다"며 "공원 곳곳에서 스탬프를 찍어 완성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꽃 구경에 다양한 체험도 풍성=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에 있는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에서도 축제가 한창이다. 최근 내린 눈으로 만개한 매화를 보긴 어렵지만 하귤, 토종동백, 매화정원의 다양한 포토존을 만나는 재미가 있다.

축제장에선 다양한 체험도 만날 수 있다. 동물

먹이주기와 승마체험, 야생화 자연학습체험 등 상상 프로그램이 어김없이 열리며 돌담 쌓기, 투호 던지기, 굴렁쇠처럼 전통놀이도 해 볼 수 있다. 오는 3월 8일까지 부모와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도민)와 도내 장애인복지단체는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제주시 한림읍에 자리한 한림공원에도 매화가 활짝 피었다. 이달 29일까지 한림공원 매화·수선화정원에서 열리는 축제에선 80년생 능수매화부터 20년 이상 된 백매화, 홍매화, 청매화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한림공원 관계자는 "처음에 피는 종인 백매, 홍매는 이미 만개해 서서히 지고 있다"면서도 "버드나무처럼 늘어지는 능수매화는 지금이 제일 보기 좋은 때"라고 말했다.

매화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림공원에서 매화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그 중에 3명을 선정해서 소정의 선물을 주는 행사다. 이외에도 매화 쿠키와 비누, 땅유지매화 꽃차 등의 상품도 판매된다. 매화가 전하는 계절 향기가 다채롭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사진=노리매 테마파크·휴애리 자연생활공원 제공

## 제주바다와 문학 (42) 문무병의 '... 제주 아이들에게'



제주로 수학여행 온 아이들이 제주바다에서 추억을 쌓고 있다. 문무병 시인은 아이들에게 '바다의 껍질을 버리고 제주바다의 심연을 들여다 보아라'로 노래했다.

### "바다의 껍질을 버리고 심연을 보아라"

심방이 되고 싶다는 노래  
관광지 원색 감탄사 말고  
낭만의 함성 밑을 살피길

그는 심방(무당)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의 곁에 불러낸 이들은 무명씨로 살다간 서러운 흔백,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바다에서 좌초한 힘없는 우리 형제들이다. 그는 심방이 되어 온갖 속임수, 비리와 부정, 그 절망의 늪을 밀어내려 한다. 왜 심방이 되려는가를 묻는다면 거기엔 제주4·3이 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날개를 꺾어야 하는 아기장수와 민란이 있었다. 그보다 더 거슬러 오르다보면 섬이 품은 슬픔의 역사가 깊고 오래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에게 제주 바다를 빌려 이 땅이 흘러흘러온 사연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한다. 제주 문무병 시인의 첫 시집 '영경귀꽃' (1999)을 따라 그의 노래를 들어보자.

'육지사람들 관광와서 바다를 향해 터뜨리는 원색의 감탄사를 흥내내는 아이들아, 바다는 우리 어머니의 뼈와 살이 묻혀있는 무덤이란다. 파도에 밀려오는 해초와 같이,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물에 들어 처절하게 날아오르던 숨비소리, 이 모든 것이 아이들아, 아름다운 바다의 심연에 있는 진짜 현실의 바다란다.' ('바다를 사랑하는 제주 아이들에게' 중에서)

시인에게 제주바다는 '슬픈 노래'를 띄우는 곳이다. 왜 아니겠는가. 제주 바닷가에는 해마다 물질하다 죽거나 풍랑을 만나 죽은

몇 구의 시체들이 떠오른다. 그때마다 우리 어머니들은 요양국 사자들이 보낸 시신이라 여겨 몸을 뒤아주고 가지런히 묻어 저승 상마물로 보내주는 무흔곳을 치렀다. '바다에서 죽은 이름모를 시신들을 고이 잠재우지 않고서야 어찌 열길 목숨을 꽃밭이라 하며 비창 하나로 들어가 해초를 캐며 죽음의 두려움을 다 잊겠느냐.'

요양국엔 좋은 밤, 좋은 옷만 있지 않다. 산호꽃 피고 이름모를 어법들이 평화롭게 헤엄치는 신비스런 꽃밭도 있지만 돌밭을 일구던 어머니의 손으로 막힌 숨 물 아쉬며 일구어놓은 해전(海田)도 있다. 거기엔 우뚝가사리, 청각, 소라, 미역, 해삼, 전복, 해초가 자란다.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 어머니들은 비창 들고 왜놈들에게 달려들었다.

목숨까지 내놓았던 이 섬은 오늘날 안녕한가. '민중열전' 연작은 그렇지 않다고 읊는다. 세 번째 시편 '중문관광단지에서 바나나를 파는 아주머니'에서 시인은 관광단지 개발로 마을이 없어지고 마을 수호신마저 사라진 풍경을 그려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나 좌판을 벌이는 이를 두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가장 전형적인 제주여자'라고 했다.

시인은 '바다를 사랑하는 제주 아이들에게' 거듭 당부한다. '바다의 껍질을 버리고 제주바다의 심연을 들여다 보아라.' 바다에서 외치는 그 낭만의 함성 밑에는 아침밥이 저승받던 줄을 몰라 이승을 떠난 우리 어머니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박 성 길**

산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북초등학교 제14회 동창일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33대 회장



**김 선 영**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제33대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회장 **홍 송 율** 의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승 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사무관



**현 미 영**  
부: 현영호(호근동식당 대표) · 모: 김영림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 족 일 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제주의 대표신문  
ihalla.com

**한라일보**가  
**大 勢** 세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2020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5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메리트'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19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19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